

Dow, Sinopec과 30억달러 합작!

Tianjin에 30억달러 투자계획 ... 에틸렌 90만톤 크래커 프로젝트 추진

세계 제2위의 화학기업인 미국의 Dow Chemical이 중국 최대의 에너지 공급기업인 Sinopec(석유화학집단공사)과 대규모 합작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국시장 공략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민일보 영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Dow Chemical은 중국시장에서 경쟁기업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키 위해 수도 베이징(北京) 인근의 비즈니스 허브로 각광받고 있는 북부 항구도시 텐진(天津)에서 Sinopec과의 합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ow Chemical은 Sinopec과의 합작에 총 30억달러를 투자해 에틸렌 90만톤 생산체제를 갖추고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 제1의 에틸렌 공급기업에 등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타이완, 홍콩까지 관장하는 Dow Chemical 현지법인의 프랭키 코 사장은 계획에 청신호가 켜지는 즉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중국은 Dow Chemical에게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시장 및 투자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ow Chemical은 199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미 중국 정부에 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중국 정부가 에너지 과잉 공급을 우려해 승인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08/20>